

소설도 읽고 영화도 보고

'소설영화독본' 15일 영화의 집서 첫 모임 '무소영' 20일부터 격주 월요일 만남 가져 첫 감상 영화 '에텐의 동쪽' '모래의 여자'

영화 컬럼니스트 조대영이 진행하는 소설영화동아리 '20세기소설영화독본'과 '무소영' (무등도서관에서 소설과 영화를 만나다)이 2020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두 동아리는 소설들의 원작을 읽은 뒤, 2주 간격으로 만나 영화 감상·이야기 나누기 등 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15일부터 오후 7시 광주극장 뒤 '영화의 집'에서 진행되며 상반기 첫 작품으로 '에텐의 동쪽'을 선정했다. 원작자인 존 스타인벡은 사회의식이 강하고 휴머니즘이 넘치는 작품들을 써온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에텐의 동쪽'에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

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에텐의 동쪽'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들 칼(제임스 딘)과 모범생이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론 형제의 이야기로 영원한 젊음의 상징인 제임스 딘을 탄생시킨 작품이다.

이런 매튜언의 '속죄'를 원작으로 한 '어톤먼트'도 만날 수 있다.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팽팽한 서스펜스로 담아낸 이언 매튜언의 '속죄'는 '오만과 편견', '안나 카레니나' 등의 원작소설을 영화로 만든 조라이트 감독이 연출했다.

이밖에도 스티븐 킹의 '사이닝', 스티븐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파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본행 야간열차' 등을 만날 수 있다.

중·단편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을 만나고 있는 '무소영'은 20일부터 격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무등도서관 1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는다.

첫 시간은 '모래의 여자'로 시작한다. 원작은 '일본의 카프카'로 불리는 아베 코보의 작품으로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베 코보가 직접 각색한 동명의 영화 역시 영화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나라야마 부시코'도 소설과 영화가 모두 유명한 작품이다. 후카자와 시치로의 소설인 '나라야마 부시코'를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강렬하게 그리고 있다. 존 치버의 단편소설 '해엄치는 남자'를 영화화한 '애정의 세월'은 미국 중산층의 황폐한 내면풍경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무소영'의 상반기 프로그램에서는 레이먼드 카버, 조지 오웰, 무라카미 하루키, 안톤 체홉, 마르그리트 뒤라스 등의 원작소설과 이를 영화로 만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영화 '위대한 개츠비'



영화 '에텐의 동쪽'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삶의 고백

강진 출신 김부수 시인

첫 시집 '추위 봐야...' 펴내

등단 27년 만에 첫 시집을 펴낸 현직 교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시인은 "시라기보다는 삶의 가닥을 추스르는 마음으로 쓴 글"이라고 말한다.

강진 출신 김부수 시인이 최근 펴낸 '추위 봐야 별거냐며 동백꽃 핀다' (문학들)는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삶의 고백이다. 어떤 기발함이나 사상의 전복보다는 자기 고백을 담은 '정직한 시'다.

"곧게 걸린 녹스 자물쇠./지문 감식도 되지 않을 오랜 세월이/ 햇살 아래 새침하게 앉아 있다." ('빈집')

이번 시집의 서시라고 부를 수 있는 '빈집'의 전문이다. 우리네 시골 어디를 가나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 결코 담갑지 않은 풍경이지만, 우리들의 옛 모습을 담은 모습이다.

시라는 것이 현실과 상상 사이를 오가는 과정의 산물이라면 시인의 시계주는



그 무게중심이 현실 쪽으로 쏠려 있다. 요즘은 흔히 접하는 세련된 수사와 기교로 이루어진 시와는 다른 감흥을 준다.

이제는 "좁쌀만큼 작아져 덩그러니/ 식은 밥이 되어" 찾아온 시인을 고향의 입춘은 이렇게 다독인다. "긴 겨울 가뭄 끝에 내리는 빗속으로/ 아무지게 붉은 꽃잎을 던지며/ 이제 추위 봐야 별거냐며/ 동백꽃이 핀다" ('추위 봐야 별거냐며 동백꽃이 핀다' 중)

정양주 시인은 발문에서 "시인보다는 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기록"이라며 "읽으며 가슴에 더운 김이 나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평한다. 한편 김부수 시인은 조선시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지역 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땅 끝문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성전중 교사로 근무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오복 시인 동시집 '행복한 튀밥' 펴내

조오복 시인이 동시집 '행복한 튀밥' (아동문예)을 펴냈다.

모두 60여 편이 실린 작품집에는 '무지개', '동물원에서', '파도', '낮달', '섬' 등 일상의 소재를 모티브로 한 동시가 수록돼 있다.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동시"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작품은 성인들이 읽어도 무방할 만큼 보편적인 내용들이다.

"뜨거운 통 안에서/ 방글방글// 몹시 어지럽고 뜨거웠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잠고 잠았어// 땀! 더 이상 잠을 수 없어서/ 쏟아졌어. 함박눈처럼//와, 맛있다!// 아이들이 입안 가득/ 먹는 거야// 튀밥으로 다시 태어난 게/ 너무나 행복했다." ('행복한 튀밥' 전문)

표제시 '행복한 튀밥'은 튀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어린이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아이들을 생각해 잠았지만 더 이상 잠을 수 없어 함박눈처럼 쏟아진 튀



밥에 대한 이야기는 미소를 짓게 한다. 이처럼 작품집에는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시뿐 아니라 현재의 아이들의 시각으로 묘사한 작품이 많다.

이성자 시인은 "동시집 '행복한 튀밥'은 한마디로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야.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곤조곤 들려주고 있어. 이렇게 좋은 동시집을 혼자서만 읽지 말고, 주변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서 함께 읽어보라고 소개하면 어떨까?"라고 평한다.

한편 조오복 시인은 제26회 광주시민 백일장 대상, 제14회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백일장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인 김향순 명창 전남도 무형문화재 됐다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 후계 양성 최선"

국악인 김향순 명창이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로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9-7호에 지정됐다.

판소리 강산제는 서편제의 중심 맥을 형성하는 소리로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에 거주하던 박유전을 시작으로 정재근, 정응민, 성창순, 김향순으로 계보를 잇고 있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판소리 명창 중 강산제 심청가를 완창하고 연행할 명창이 많지 않은 가운데 김 명창은 실기 능력은 물론 타고난 소리꾼으로 판소리의 전승 발전을 이끌어갈 보유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 명창은 "평생을 소리하나 불독고 매진해왔는데 문화재라는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아 보물을 안은 듯 싶다"며 "강산제 심청가가 그동안 유타 선생님들이 모두 세상을 떠서 맥이 끊길 위기였는데 이번에 제가 문화재로 지정돼 더욱 감사하고 의미가 크다. 강산제 후계 양성에



등 대외적으로도 음악적인 기량과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현 전남도립국악단 단원으로서 수회의 공연과 교육 활동에 참여했으며 '수궁가'를 시작으로 '심청가', '흥보가' 완창발표회 10여회를 해내며 전통 국악을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보다 노력해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 출신인 김 명창은 10세에 판소리에 입문해 공대일, 한애순, 성창순, 조몽달 선생을 사사했으며 광주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차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공모

전남도가 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을 공개 모집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도립국악단을 새롭게 이끌 역량 있는 예술감독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위촉 기간은 2년으로 최대 2차례까지 재위촉될 수 있다. 근무 조건은 상근 또는 비상근(주 3~4일 근무) 모두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2년 이상 예술단 예술감독(상임지휘자·상임안무자 등) 경력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 사유가 없는 사람, 현직 교수의 경우 해당 대학의 총·학장의 겸임 허가가 가능해야 한다.

희망자는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전남도 문화예술과(061-286-5431)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다음달 4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뒤 13일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연극의 산실 총장아트홀 문 닫아

연극 '오셀로 - 질투는 나의 힘', '두 여자', '서툰 살인', '진정 엄마랑'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광주 총장아트홀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됐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총장아트홀이 지난 5일 운영을 종료하고 문을 닫았다.

총장아트홀은 최근 늘어난 무료 공연·행사와 침체된 총장로 상권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폐관한다고 밝혔다.

총장아트홀 관계자는 "그동안 총장아트홀을 이용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잠시 휴식기간을 갖고 더욱 알차고 좋은 콘텐츠로 다시 관객들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자전거 배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062)252-1119, 010-9881-2922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정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061)337-7712, 010-5288-3257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저로,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공학, 태일, 도인양성 각 분야 개인지도
☎062)236-2655, 010-3646-2977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학 태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향촌

서구 상무회로 32번길 29-3(치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생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062)371-0583, 010-3947-0005

三代(삼대)원조 나주공방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기는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정문길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특!!
☎061)333-4514, 010-3620-7268

함께와들개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8멸치육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석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다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원에서 효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OK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분위 ☎ 010-8005-018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침종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